

이 주 의
정 책
뉴 스

내년부터 3년간 생활 SOC 국비 30조 원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30조 원을 투자한다. 생활 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뤘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 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3개 분야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대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비와 민간 투자까지 합하면 총 48조 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0만 명에 이르는 고용이 창출되고, 운영 단계에서 일자리 2만~3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 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 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042개)에서 4만 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2022년 240여개)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 자료: 국무조정실

- 0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 ① 공공체육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 ②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공공예술포럼)
 - ③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 0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 ①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돌봄체계)
 - ②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 ③ 공공의료 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 0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 ①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 ②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저감숲, 휴양림, 야경장)

정부는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중앙 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2019년도 생활 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50% 늘어난 8조 600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2018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생활 SOC정책협의회와 생활 SOC추진단을 꾸려 생활 SOC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044-200-2646